

부산일보

1 판

제 19520 호

2007년 7월 17일 화요일 (음력 6월 4일)

시민 절반 “한·일 해저터널, 역사와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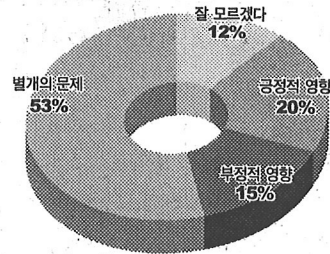
해양대, 시민 600명 설문

한일 간에 거론되고 있는 해저터널 추진문제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역사문제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접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생 34명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 중인 한일 해저터널 문제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2주일에 걸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역사,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6개의 분야에 대해 부산시민 각 1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결과 부산시민들은 해저터널 문제를 한일간 역사문제와 별개로 생각

한일간 역사가 해저터널에 미치는 영향?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일 역사가 해저터널 개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별개의 문제다(5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 영향(15%)’ ‘긍정적 영향(20%)’ 등으로 나타났다.

‘역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와 관련, ‘그렇다(41%)’와 ‘아니다(40%)’로 팽팽히 맞섰다. 역사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은 역

사문제와 해저터널 건설은 별개 문제로,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시민들은 또 ‘부산경제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12%)’ ‘그렇다(49%)’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보통이다’는 22%,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14%와 3%로 나타났다.

부산시민들은 해저터널의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매우 그렇다(21%)’ ‘그렇다(55%)’로 응답, 생태보호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저터널로 인해 “부산시민의 국제도시 시민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질 것(63%)”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났다.

최용오기자 choice@

釜山日報 2007年7月17日

市民の半分「日韓海底トンネル、歴史と無関係」

海洋大が市民600人にアンケート

日韓間で論じられている海底トンネル推進の問題に対して、釜山市民は歴史問題とは別に現実的な態度を示しているという調査結果がでた。

韓国海洋大学の東アジア学科の学生34名は、政界と学界で論議中の日韓海底トンネル問題に対する釜山市民の見解を直接聞くため、去る5月末から2週間にわたり釜山市民を対象にアンケートを実施した。歴史、経済、社会、国際関係など6つの分野について釜山市民各100名ずつ、総600名を対象とした。

調査の結果では釜山市民は海底トンネル問題を日韓間の歴史問題とは別に考えているという反応が多かった。「日韓の歴史が海底トンネルの開通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別の問題だ(53%)」という回答が最も多く、「否定的な影響(15%)」「肯定的な影響(20%)」などとなった。

「歴史問題の解決に役立つか」に関して、「そうだ(41%)」「違う(40%)」と対立した。歴史問題の解決に役に立たない、という反応は、歴史問題と海底トンネルの建設は別の問題で、日本が歴史的事実をあるがままに認めれば解決するだろうという考えが多いからだと解釈された。

市民はまた、「釜山経済に役立つか」という質問に「非常にそうだ(12%)」「そうだ(49%)」など肯定的な反応が多かった。「普通だ」は22%、「違う」と「非常に違う」は14%と3%となった。

釜山市民は海底トンネルの「生態系に対する悪影響」について「非常にそうだ(21%)」「そうだ(55%)」と回答、生態保護問題を敏感に考えているという調査結果となった。また、海底トンネルによって「釜山市民の国際都市市民としての認識が高まる(63%)」という期待感も表れた。